

제 303호 · 2015년 4월 22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중국, Gwadar항 40년 운영권 획득 및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 준비
2. 탄자니아 다레살람항, 내륙철도 연결시 물동량 증가 기대감 상승
3. BMW, 상하이에 아시아 최대 부품배송센터 운영 개시
4. Sojitz, 미얀마 콜드체인 물류서비스 투자

물류시장동향

1.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담맘 화물철도 확장 공사 계약
2. 두바이 DP World社, 캐나다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

공지사항

1. 2015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연장 공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중국, Gwadar항 40년 운영권 획득 및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 준비

- 중국은 육상·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의 하나로 파키스탄 Gwadar항과 중국 신장자치구(Xinjiang)의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일대일로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 프로젝트는 2013년 시진핑 주석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중국이 실크로드 경로 상에 있는 파트너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이 작년 11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12월에 기금 회사를 북경에 설립함
-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4일 중국이 Gwadar항에 대한 40년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보도했음
 - 중국은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선택권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Gwadar항에 대한 40년 운영권을 획득했고, 계약 이전에 Gwadar를 항만도시(Port City)로 변경하겠다는 의향을 밝힘
- 중국이 Gwadar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북서쪽 신장자치구의 Kashgar에서 약 3천 km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의 끝단에 위치해 있는 Gwadar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경유지이기 때문임
 - 파키스탄 서부 Balochistan주의 아라비아 해변에 있는 Gwadar는 페르시아만 입구의 호르무즈 해협에 근접해 있어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중남아시아와 중동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임
 - 중국이 중동산 원유를 Gwadar항에서 환적하여 경제회랑을 통해 운송할 경우 현재 12,000km의 운송거리를 2,395km로 줄일 수 있음
- 이에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 Gwadar항에서 중국의 신장자치구(Xinjiang)까지 원유와 가스를 운송하는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의 경제회랑을 건설하는 대규모 Gwada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중국과 다른 20개 국가를 연결하게 되는데, 대량화물 및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향후 3-5년 내에 Gwadar 프로젝트에 16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해 항만과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국제공항, 방파제 등을 건설할 예정이고, Gwadar에 4선석(선석당 300m 길이)의 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 할 예정임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5.4.16; www.business-standard.com, 2015.4.16; www.chinadaily.com.cn, 2015.4.14.

이언경 전문연구원 (☎ 051-797-4682, eklee@kmi.re.kr)

□ 탄자니아 다레살람항, 내륙철도 연결시 물동량 증가 기대감 상승

- 탄자니아의 동아프리카 관문항 다레살람에서 아프리카 내륙 깊숙이 콩고민주공화국까지 연결되는 중앙회랑 철도노선(Central Corridor Rail Line) 공사가 최근 착공되면서 탄자니아의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중앙회랑 철도노선은 탄자니아 다레살람 항만을 기점으로 하여 아프리카 내륙을 향해 서쪽으로 진행한 뒤 부룬디의 수도 부줌부라(Bujumbura)에서 북상하여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Kigali)에 이르는 총 연장 2,561km의 화물·여객 수송 철도노선으로 향후 5년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동 철도노선 공사는 지난 3월 공식 착공됐으며, 탄자니아 당국은 동 철도노선 완공시 현재 탄자니아 최대 도시이자 동아프리카 주요 항만인 다레살람 항의 물동량이 현재의 5백만 톤 수준에서 3천만 톤 수준으로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물동량 증가와 화물처리에 따른 항만수입 증대로 다르에스살람 항만은 현재의 주 수입원인 관광업을 제치고 향후 탄자니아 최대 재정 수입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철도노선은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다시 우간다의 캄팔라 및 동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관문항 몸바사 항을 잇는 북부회랑(Northern Corridor) 철도노선 공사 및 내륙국 우간다의 야심찬 교통 인프라 투자계획과 연계되어 향후 동아프리카 교통물류 여건을 크게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됨
 - 케냐는 동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며, 몸바사항은 현재 동아프리카 물동량의 70%를 차지¹⁾
 - 우간다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근 경제규모 대비 교통 인프라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 동아프리카 지역의 2위 경제국인 탄자니아는 에티오피아, 카메룬 등과 함께 향후 성장전망이 밝은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 * 다레살람은 2011~13년 아프리카 10대 고속성장 도시로 선정된 바 있음
 - 아울러 탄자니아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과거 다레살람항으로부터 배후지인 르완다의 키갈리까지 8일 걸리던 화물운송 시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시키는 등 물류 시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등 5개국은 모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으로서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한편 탄자니아 다레살람항을 기점으로 한 중앙회랑 철도노선은 향후 케냐 몸바사 항에서 출발하는 북부회랑 철도노선과 우간다 및 르완다 등 내륙 물류시장을 놓고 경쟁하거나, 이웃 국가에서 개발된 자원의 수출 루트로서 자체 물량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1) 2015 권역별 시장진출전략: 아프리카지역, KOTRA자료, 15-005, p. 23.

- 탄자니아는 1차적으로 동부회랑철도노선을 자국내 석탄, 철광석 매장지인 Njombe 및 Manyara에 지선으로 연결해 자원개발 및 반출에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콩코민주공화국에 연결해 내륙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 : www.ihsmaritime360.com, 2015.4.15.

박성준 전문연구원 (☎ 051-797-4774, sjpark@kmi.re.kr)

< 다레살람 출발 중앙회랑철도 및 몸바사 출발 북부회랑철도 노선 >

East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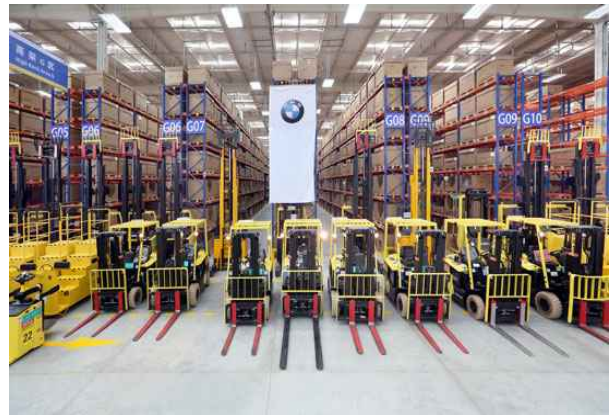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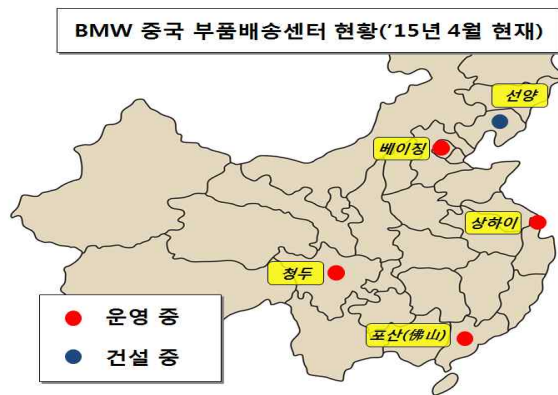


출처 : PwC 및 www.stratfor.com을 토대로 작성

□ BMW, 상하이에 아시아 최대 부품배송센터 운영 개시

- 4월 9일, BMW는 중국 상하이시 린강지구(临港地区)에 새로운 부품배송센터를 정식 운영 개시함
 - 동 배송센터는 창고면적 7.7만 m²(1단계 공정 면적 5.2만 m²)에 달하는 BMW의 아시아 최대 부품배송센터로서 중국 전 지역의 긴급 부품 주문에 대해 빠르면 24시간 내 대응 가능함
 - 동 배송센터는 BMW의 세계 통일 기준에 따라 건설되었고, BMW의 중국내 생산·판매 차종(오토바이 포함)에 대한 모든 부품을 취급함으로써 중국내 물류관리 효율을 약 20% 향상시킴
 - BMW는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중국 고급차 시장에서 서비스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²⁾, A/S에 필요한 부품 공급시간을 단축시켜 차주 및 대리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계획임

<BMW 중국 부품배송센터 현황 및 상하이 배송센터 내부 전경>



자료 : www.e0575.cc

- BMW는 2006년 베이징 부품배송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상하이, 청두, 포산 등 중국내 4개 도시에서 부품배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 선양의 배송센터가 추가 운영 개시될 계획임
 - 현재 운영 중인 4곳의 부품배송센터 부품 재고량은 13만 개, 연간 주문 건수는 500만 건 이상으로 그중 40%가 상하이 배송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임
- 한편 2014년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1,970만 대이며,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15년 승용차 판매량이 8% 증가한 2,125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 www.chinawuliu.com.cn, 2014.4.13.

김세원 연구원 (☎ 051-797-4775, ksw@kmi.re.kr)

2) 자동차 전문 컨설팅기업인 IHS Automotive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고급차 시장 성장률은 22%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14%로 하향 조정되어 고급차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

□ Sojitz, 미얀마 콜드체인 물류서비스 투자

- 일본계 회사인 Sojitz Corporation and Sojitz Logistics Corporation는 양곤에 소재한 식품 및 소비재 유통 전문업체인 Premium Distribution과의 합작으로 Premium Sojitz Logistics를 설립했음
 - 합작투자자로 설립된 Premium Sojitz Logistics(이하 PSL)는 양곤에 건설 될 3가지 유형의 물류창고(상온, 냉장, 냉동) 운영을 통해 고품질의 콜드체인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Premium Distribution는 미얀마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로, 약 3천 곳에 공급망을 가진 City Mart Group(이하 CMHL)의 식품 조달을 담당하고 있음
 - 그밖에도 미얀마 전역에 20개의 슈퍼마켓과 7개의 대형 슈퍼마켓, 45개의 편의점은 물론 양곤, 만달라이(Mandalay), 네피도(Naypyidaw)를 포함한 미얀마 주요 지역에 식품 및 도매 사업도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Sojitz사는 City Mart Group을 미얀마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했으며, 지난 2013년 8월부터 Premium Distribution사의 유통·운영 현대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음
- Sojitz와 CMHL은 미얀마에서 호텔, 레스토랑, 물류, 소매 기업 고객에게 고품질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켜야 물류사업이 성장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5,2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시장이 있는 미얀마의 경제 성장이 확대 되면서, 미얀마에서 냉장 및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반면, 부족한 전력사정으로 미얀마의 식품들은 아직까지 주로 상온에서 보관되고 있음
 - Sojitz는 수요가 급성장하는 미얀마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새로 설립되는 PSL를 필두로 콜드체인물류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얀마 사업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서 PSL은 CMHL의 사업 확대가 용이한 양곤과 네피도, 만달라이를 잇는 주요 간선노선을 기반으로 미얀마 외곽 지역까지 정기 운송되는 장거리 콜드체인물류 사업을 시작할 예정임
 - 향후 Sojitz그룹은 CMHL의 판매망과 PSL의 콜드체인물류 사업을 활용해 미얀마에서 식품 도매부터 소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식품기반 가치사슬(foods-based value chain)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미얀마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 : www.sojitz.com, 2015.4.13.

이홍원 연구원 (☎ 051-797-4783, hongwon@kmi.re.kr)

물류시장동향

□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담맘 화물철도 확장 공사 계약

- 중국 철도 공사 CRCC(China Raw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는 23개월 간 리야드-담맘의 화물 철도 보수 및 확장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리야드에서 시작하여 아프케이, 알 하사, 알 카르즈를 포함하여 담맘을 종착역으로 하는 총 214km에 달하는 철도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임
 - 사우디 철도공사 SRO는 금번 공사를 통해 91km의 철도를 개보수하며 32.5톤 수준으로 차축 하중을 강화한 철도라인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임
 - 해당 철도공사는 SRO의 가동용량을 개선시켜 철도 운송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들의 증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SRO 대표 Mohammed Khalid Al-Suwaiket가 전함
 - 중국과의 철도 공사 계약은 기존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우디 철도공사의 노력의 일환임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3.30.

김민경 연구원 (☎ 051-797-4777, mkkim421@kmi.re.kr)

□ 두바이 DP World社, 캐나다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

- DP월드(DP World)사는 도이체뱅크(Deutsche Bank)사와의 합의를 통해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항(the Port of Prince Rupert)의 페어뷰(Fairview) 컨테이너 터미널을 인수했다고 밝힘
 - DP월드사는 본 인수를 위해 5억 8천만 캐나다 달러(CAD, 4억 7560만 USD)를 투자했음³⁾
 - 프린스 루퍼트 항만당국에 따르면 상기 인수에 따라 해운 시장의 성장기회 및 수요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힘
 - 또한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은 2단계 확장 계획(phase 2 expansion)에 의해 기존의 연간 85만 TEU의 화물처리능력이 135만TEU로 개선될 전망이다
- DP월드의 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이엠(Sultan Ahmed Bin Sulayem)회장은 상기 인수로 인해 DP월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주주가치의 향상이 예상된다고 밝힘

자료 : www.gscintell.com, 2015.4.7.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ko@kmi.re.kr)

3) 1 CAD = 0.82 USD 외환은행 2015.4.17. 매매기준율 적용

2015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모집 연장 공고

○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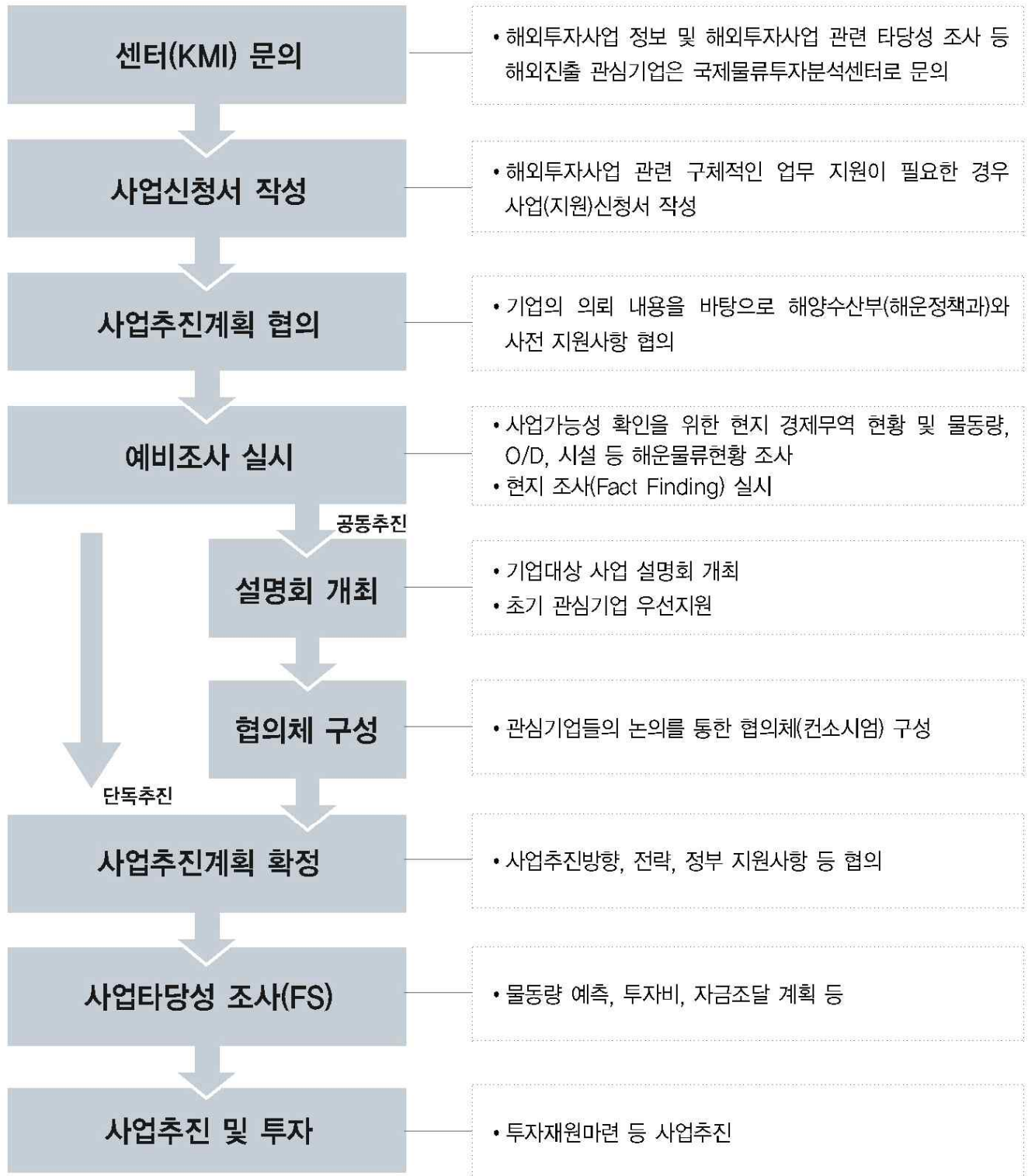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내용 및 일정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 신청기간 : 2015. 4. 24(금) 18:00 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